

#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THE KOR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NEWSLETTER

발행인: 김영훈 편집인: 신영철 발행처: 대한정신약물학회 학회사무실: 150-73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 오피스텔 1003호  
Tel: 02)784-2742 Fax: 02)784-5542 사무장: 이우임 e-mail: secretariat@kcnp.or.kr 홈페이지: http://www.kcnp.or.kr  
제작: (주)엠엘커뮤니케이션 전화: 02)717-5511(대) Fax: 02)717-5515

## 권두언

### 한가한 독서



지난 여름에 전공과 관계가 적은 도서 두 권을 읽었다. 한 권은 <우주와 인간 사이에 질문을 던지다>이고 다른 한 권은 <만들어진 神 The God Delusion>이다. <우주와 인간 사이에 질문을 던지다>는 우리 학회 회원인 권준수 교수와 김재진 교수 등이 공동 집필하였으며 정재승이 기획한 책이다. <만들어진 신>은 <이기적 유전자>를 저술한 옥스퍼드대학교의 Richard Dawkins가 집필하고 이한음이 옮긴 책이다.

이 두 책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 몇 가지만을 간단히 적어본다.

- 1940년대 미국의 과학자 가모브, 앨퍼, 허먼은 우주의 시작에 관해 충격적이고 황당한 가설을 내놓았다. 우주는 태초에 매우 뜨거운 작은 점이 폭발하여 점점 팽창하면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 가설이 옳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 '태초의 빛'이다.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했다면 처음에는 빛과 물질이 섞여 있어 빛이 빠져 나오지 못한다. 우주가 폭발을 시작한 지 30만 년쯤 되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빛과 물질이 분리되고 빛이 빠져 나오게 된다. 이 빛의 온도는 점점 내려가서 현재는 영하 270도 정도의 매우 낮은 온도가 된다. 이런 빛을 우주배경복사라고 한다. 1964년에 미국의 전파천문학자 펜지어스와 윌슨이 이 빛을 찾아내어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 '우주의 팽창'이다. 1929년에 미국의 천문학자 허블은 은하의 속도와 거리의 관계를 조사하여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후에 많은 관측을 통하여 은하의 속도와 거리의 관계는 방향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바로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것과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우주의 나이'다. 지구와 달에 있는 암석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지구와 달의 나이는 약 39억 년이고, 운석을 분석한 결과 태양계의 나이가 약 46억 년이라고 알려졌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우라늄을 분석한 결과 우라늄은 100억 년 내지 150억 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주의 나이는 120억 년보다 많을 것이다.
  - '가벼운 원소의 존재'다. 헬륨, 중수소, 리튬 등 가벼운 원소의 존재는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원소들은 우주가 대폭발을 시작한 지 3분이 되기 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 자연의 기본 구성단위가 점이 아니라 끈이다. 전자, 쿼크, 광자, 중성미자 등 보통의 물질 구성입자들은 모두 고무줄 같은 끈으로 되어 진동하며, 그 양끝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에 부착되어 우리 공간을 떠나지 못한

다. 초끈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모두 10차원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7차원의 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과 분리되어 있다.

두 번째 책인 <만들어진 신>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나온다.

1.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 로버트 퍼시그 -
2. 종교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여 보라. 가능한 모든 세계들 중에서 최상의 것은 종교가 없는 세계일 것이다.  
- 존 애덤스 -
3. 왜 사람들은 어떤 궁극적인 질문(우주론적 질문)에 대해 과학이 대답할 수 없다면 종교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4. 현대 우주론은 사실상 다윈 및 월리스 (Alfred Russel Wallace)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 이전의 어느 누구와도 달리, 그들은 초자연적 행위자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우리 존재를 설명할 수 있었다..... 다윈과 월리스는 생명 과학뿐 아니라 우주론을 위한 표준을 설정했다.
5. 일반적으로 말해 종교가 미치는 진정으로 나쁜 효과 중 하나는 “몰이해에 만족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친다는 점이다.

정신약물학이 아닌 엉뚱한 이야기, 과학과 종교, 한가한 여름방학의 한가한 독서였다.

대한정신약물학회 고문  
강 병 조





## 집행부소식 (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 소식)

### 총무위원회

#### 2006-2008년 회기 대한정신약물학회

##### 7차 상임이사회 결정 사항 및 진행사항

일시 : 2007년 8월 17일 (금) 오후 4시

장소 : 오대산호텔 회의실

1. 한국형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치료 지침서 프로젝트 진행 중  
대정약과 대불학 공동 주관  
실무위원장 : 채정호 (가톨릭의대)
2. 임상신경정신약물학 교과서 편찬 건  
구민성 기획이사 책임하에 연말까지 편찬 완료하기로 함  
출판기념회는 2008년 1월이나 2월에 별도로 하기로 함
3. 홈페이지 전면 개정 및 약물학회지 투고과정의 전산화 (주)엠엘커뮤니케이션과 적정 가격에 네고하기로 함
4. 2007년 간행위원회 워크숍  
일시 : 2007년 12월 21일 (금) 오후 3시-6시 (예정)
5. 2007년 전체 이사회 및 송년회  
일시 : 2007년 12월 21일 (금) 오후 6시 이후 (예정)  
안건 : 차기 이사장 (2008-2010년 회기) 선출 건
6. 젊은 연구자 모임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로 함
7. 2008년 춘계학술대회는 서울에서 3월 28일 (금)-29일 (토) 이틀 동안 하기로 함
8. 2008년 추계학술대회는 연수교육과 병행하여 하루를 하고 가급적 지방에서 하기로 함
9. 2008년 4th Pacific-Asia Regional CINP (2008년 3월, 말레이시아)  
1-2개 정도의 심포지움 구성하여 좌장 및 연자로 참여 시 참가비 일부는 학회에서 지원하기로 함  
이승환 정보이사와 구민성 정보이사가 하나씩 준비하기로 함
10.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일시 : 2007년 9월 7일 (금)  
장소 :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지하 1층 그랜드볼룸 (서울역 앞)  
사항 : 2개의 방을 동시 운영 (1일간)  
일본 히구치 교수 특강 및 중외계약에서 해외 연자 초청강연  
오가는 ISS
11. 2008년도 동계 심포지움 장소 및 일시  
후원 : 한국화이자  
일시 : 2008년 1월 5일 (토)  
주제 : 학회 발전 안에 대한 1년간 시행결과에 대한 점검 및 문제점, 향후 계획 등

- 장소 : 유성
12. 국문학술지  
- 18권 5호 발간 예정  
- 특집이나 학회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투고 편수 감소를 대비하기로 함  
- 학진 재심사 준비 (2008년 초 예정)  
- KoMCI 보고서 결과 정신과 연관 학술지 중 가장 IF가 높은 학술지로 나타남
  13. 영문학술지  
- 5권 2호 발간 준비 중 (종설1, 원저3, 증례1)  
- 내년 6권 1호 진행 중 (종설2, 원저1)  
- 미투고 이사분들의 적극적 투고 부탁
  14. CINP Council 후보로 권준수 부이사장을 추천하기로 함
  15. APLUS 연구는 통계 처리 중
  16. Asian ACNP는 2009년 창립을 목표로 추진 중임
  17. 젊은 editor 양성을 하기로 함
  18. 회보 현황- 현재 1년 4호 중 2호를 발간
  19. 블로나세린 임상연구는 등록인원이 부족하여 진행에 차질을 보임

### 학술위원회

#### 2007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하계심포지움 성료

평생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하계심포지움이 2007년도 8월 17일 (금) - 8월 19일 (일) 강원도 호텔오대산에서 개최되었다. 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학회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학술지 발전 방안과 전공의와 전문의를 위한 약물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가 이루어졌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IRB와 생명윤리법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다.

#### 8월 17일 (금)

16:00 - 18:00 대한정신약물학회 상임이사회  
(closed meeting)

#### 8월 18일 (토)

- 1부 대한정신약물학회의 장기 발전 방향 및 전략 I  
- 학술지 발전 전략  
좌장 : 김영훈 (이사장, 인제의대)  
국문학술지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채정호 (간행이사, 가톨릭의대)  
김찬형 (학술이사, 연세의대)  
영문잡지 현황 및 발전전략  
정영철 (영문지 공동편집위원장, 전북의대)



2부 대한정신약물학회 장기 발전 방향 및 전략 II :  
 - 교육 부분 좌장 : 권준수 (부이사장, 서울의대)  
 전공의를 위한 정신약물학 교육  
 강응구 (교육이사, 서울의대)  
 전문의를 위한 정신약물학 교육  
 구민성 (기획이사, 관동의대)

3부 특강 좌장 : 강대엽 (부이사장, 용인정신병원)  
 IRB와 생명윤리법  
 김유석 (복지부 생명윤리안전팀 사무관)

8월 19일 (일)

ISS Improving Wellbeing for Our Patients  
 좌장 : 윤진상 (전남의대)  
 Amisulpride, a broad spectrum antipsychotic  
 with good efficacy 김성완 (전남의대)  
 지정토론 박원명 (가톨릭의대)  
 Why is the sleep maintenance important?  
 이승환 (인제의대)  
 지정토론 김찬형 (연세의대)

2007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성료

대한정신약물학회는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2007년 9월 7일 (금)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5개의 심포지움, 2개의 연수교육 세션, 그리고 lunch 심포지움, 특강으로 진행하였다.

5개의 심포지움은 각각 정신분열병 및 항정신병약물, 우울 및 불안, 기초신경과학, 양극성 장애, 강박장애를 주제로, 2개의 교육 세션은 정신과 영역에서의 비약물적 생물학적 치료 및 소아정신 약물학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오후 특강에서는 네덜란드의 Waldinger 교수가 "sigma receptors"의 최근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하였고, 일본의 Higuchi 교수는 "일본의 정신분열병 약물치료"에 대한 연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이날 김도관 교수 (성균관의대)는 정신약물학 분야에서의 학술적 기여를 인정받아 제6회 대한정신약물학회 오츠카 학술상을, 김성완 교수 (전남의대)는 제5회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였다.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의 프로그램 내용은 아래와 같다.

Symposium I. Current Problems in Treating Schizophrenia with Atypical Antipsychotics

좌 장 : 김창윤 (울산의대) / 권준수 (서울의대)

S1-1 Current problems in Treating Schizophrenia: Overview 안석균 (연세의대)

S1-2 Managing metabolic side effects 김정진 (가톨릭의대)

S1-3 How to reduce suicide in schizophrenia?

남윤영 (국립서울병원)

S1-4 Optimal long-term strategy : How to improve function in patients? 심주철 (인제의대)

Symposium 2. Treatment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the POST SSRI ERA

좌장 : 기백석 (중앙의대) / 강대엽 (용인정신병원)

S2-1 Future challenges in the treatment of mood and anxiety disorders 유범희 (성균관의대)

S2-2 Special disorders—seasonal affective disorder and 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이 은 (국민보험공단 일산병원)

S2-3 The Impact of SSRI : Pros and Cons 김재민 (전남의대)

S2-4 The post SSRI ERA in Drug Therapy 이상열 (원광의대)

Symposium 3. Wnt Signaling in Psychiatric Disorders

좌 장 : 김영훈 (인제의대) / 정인원 (동국의대)

S3-1 Wnt signaling in human illnesses 조익훈 (서울시립대)

S3-2 Wnt signaling pathway in bipolar disorder 이정구 (마산동서병원)

S3-3 Wnt signaling genes in schizophrenia 강응구 (서울의대)

S3-4 Neuroprotective effects of olanzapine 박성우 (인제대 백인제연구소)

Symposium 4. Understanding Bipolar Depression

좌 장 : 윤진상 (전남의대) / 박원명 (가톨릭의대)

S4-1 Basic concepts and diagnosis of bipolar depression 전덕인 (한림의대)

S4-2 Biology of bipolar depression 안용민 (서울의대)

S4-3 Novel treatment of bipolar depression 신영철 (성균관의대)

S4-4 Future directions for practice and research 조현상 (연세의대)

Symposium 5. Defining New Boundaries of OCD for Treatment and Research

좌장 : 백기청 (단국의대) / 김찬형 (연세의대)

S5-1 Is OCD still an anxiety disorder? 양종철 (전북의대)

S5-2 Is OCD a unitary disorder? 김세주 (연세의대)

S5-3 OCD and Schizophrenia 구민성 (관동의대)

S5-4 OCD and cognitive function 하태현 (서울의대)

Educational Session 1. Non-Pharmacological Somatic Therapy in Psychiatric Disorders

좌장 : 이 철 (가톨릭의대)



- ES1-1 Theory and practice of rTMS  
채정호 (가톨릭의대)
- ES1-2 Deep brain stimulation/VNS  
석정호 (한림의대)
- ES1-3 Neurofeedback  
노명선 (서울의대)

**Educational Session 2. Current Issues in Clinical Child Psychopharmacology**

- 좌장 : 송동호 (연세의대)
- ES2-1 Psychopharmacological characteristics in child and adolescence psychopharmacotherapy  
반건호 (경희의대)
- ES2-2 Use of antidepressants in child and adolescence population  
양수진 (전남의대)
- ES2-3 Psychopharmacotherapy in ADHD  
황준원 (서울의대)

**Special Lectures**

- 좌장 : 박민철 (원광의대)
- SL-1 Sigma-1 receptor activation and antidepressant-induced neuroregeneration  
Marcel D. Waldinger (Utrecht Univ, Netherlands)
- SL-2 The past and future of psychopharmacological treatment of schizophrenia  
Teruhiko Higuchi (Japan)

**Lunch Symposium Sponsored by Janssen-Organon Korea Comprehensive Approach to Mirtazapine from Clinical Studies and Clinical Experience**

- 좌 장 : 이홍식 (연세의대)
- LS-1 Review of RCT's of antidepressants : focused on core symptoms of depression  
서호석 (포천중문의대)
- LS-2 Korean clinical data review on mirtazapine  
박원명 (가톨릭의대)

**간행위원회**

대한정신약물학회지는 2007년도 18권 5호가 9월 30일 정시 발간되어 출간되었으며 18권 6호는 11월 30일 발간 될 예정입니다. 격월로 정시에 발간되고 있는 대한정신약물학회지는 회원들의 연구 결과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게재할 수 있는 학문 교류의 장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많은 성원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내 영문학술지 중에서 최초로 MEDLINE 및 SCI 등재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정신약물학회 영문 공식 학술지 Clinical Psychopharmacology & Neuroscience는 연 2회 간행되고 있으며 6권 1호가 2월 말에 정시 출간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앞으로도 좋은 영문 원고를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 및 영문 학술지 투고처 및 편집위원회 주소**

150-73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 오피스텔 1003호  
 전화 : 02-784-2742, 팩스 : 02-784-5542  
 E-mail : 사무실, secretariat@kcnp.or.kr 편집위원장 채정호, alberto@catholic.ac.kr

## 하계심포지움 지상 중계

하계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던 내용 중 참가 회원들의 관심이 높았던 ‘전공의를 위한 정신약물학 교육’에 대한 내용과 ‘IRB와 생명윤리법’ 특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전공의를 위한 정신약물학 교육

강웅구 (교육이사)

임상에서 사용되는 약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임상가로 자라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정신약물학에 대해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공의들은 임상가는 물론 연구자로서도 자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정신약물학과 임상적 약물치료 두 측면이 모두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다수의 전공의가 임상의로서의 길을 갈 것이니 만큼 후자에 중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유능한 임상 정신약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능한 임상가가 되어야 한다. 임상가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다양하겠지만, 약물치료와 관련지어 본다면 먼저 “환자에게 어떤 약물이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일 것이다. 수련과정은 합리적인 결정(rational decision making)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젊은 의사들은 이를 위한 기초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신의학에 입문하게 된다. 학생으로서 배우는 것은 정신질환의 일부 증상, 병명, 약제명 등에 불과하다. 인턴 기간 중 정신과 경험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뿐더러, 이들이 병동에서 일어나는 치료적 결정의 과정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다. 이렇게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전공의들에게, 약물학이란 증상과 치료약제간의 관계를 표시한 look-up table의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의국의 관습, 독립적이지만은 않은 지식을 제공하는 제약사의 정보들이다. 이런 편향적 정보들은 백지상태에서 시작한 이들에게 imprinting된다. 연차가 올라가면서 자신의 경험도 쌓이고, 약물 관련 정보를 평가할 능력이 생기면서 약물 사용이 더 성숙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도 않다. 적어도 고년차에서는 환자의 문제 중 특정 약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확실히 인식하고 치료를 시작하여야 할 터인데, 이러한 “목표설정”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무엇보다 지도전문의들이 전공의 약물교육에 관심이 적고 체계적 supervision을 하지 않는 데 있다. 수련이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의 경험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것도 약물 치료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예컨대 특수클리닉 경험은 일부에 국한된다. 전반적으로 대학병원급과 전문병원은 환자군과 사용 가능한 약물들이 다르기도 하다. 한편 임상연구는 임상가로서의 수련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연구는 교란변인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한 환자군에서만 이루어지고, 제한된 치료적 개입만이 허용되며, 측정되는 결과 변인도 그 약물의 특성을 잘 보여주리라 기대되는 일부에 국한된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전공의들은 특정 약물의 특정 증상에 대한 효과는 알게 되지만 환자의 포괄적 이해 및 치료를 배울 기회를 잃는다. 그러면서



도 전공의들은 이런 방식의 치료가 가장 진보된 치료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임상 알고리즘들은 이보다는 자유롭고 포괄적일 수 있지만, 아쉽게도 전공의들의 관심도 적고 많이 적용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정신약물학 교육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가르쳐야 할 주제는 정신약물학에 앞서 임상 정신의학이고, 그에 앞서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될 것이다. 환자의 행동을 조절/통제하는 것이 치료의 한 목표가 되는 정신의학에서 이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사소한 자극에 irritable해진 조증 환자를 본 주치의가 “haldol + ativan IM”이라는 “족보”에 사로잡혀서, 주사를 놓기 위해 환자를 강박하여 더 irritable하게 만드는 것이 합리적 치료행위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임상정신의학의 기본인 병력청취, 정신상태검사, 얻어진 정보를 통합하기, 환자 문제의 파악, 환자에 대한 역동적 이해 등도 약물학 교육에 선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 개인별로 customize된 치료계획을 세우고, 이 중 약물치료가 어느 부분을 담당할지를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약물학 분야에서도 정신약물학에 우선해 일반적인 약물치료 원칙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정신과 약”과 “비정신과 약”을 구분해서 우리는 정신과 약만 알면 되고 모든 문제를 정신과 약 범위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태도도 불식시켜야 한다. 또한 어떤 약이든 지속적 약물치료 중에는 실험실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정신약물학 분야에서는 기초적인 약리학, 약동학에 대한 지식을 주어야 할 것이고, 약물 상호작용도 중요한 issue가 된다. 알고리즘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 등도 필요하다. 임상논문, 제약회사의 자료 등을 중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특히 정신의학분야에서는 약물치료와 관계된 질병행동 및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을 개개의 약물에 대한 지식과 함께 가르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 학회의 전공의 대상 교육은 그 동안 특정 질환의 치료, 특정 약물군의 특성 등에 중점을 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각 질환군 별로 연구학회가 생기면서 질환 특이적인 약물학 교육은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서도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따라서 정신약물학회 본연의 입장에서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부분은 전술한 약물치료의 기본 원칙과 약물치료 관련 의사 및 환자의 행태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 생명윤리법과 연구

김유석 회원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팀 사무관)

### 들어가며

19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 이후 체세포핵이식 기술에 의한 인간 복제의 우려는 수많은 생명윤리의 논쟁을 거쳐 2005년 1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생명윤리는 인간복제 금지, 맞춤형 줄기세포치료, 논문 조작 사건 등을 통하여, 윤리학자만의 학문적 주제를 넘어서 일반 시민에게도 널리 알려진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명윤리 주제가 법률의 규율 대상이 되어 일선 생명과학·의학 연구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시대에 이르렀지만, 법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연구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 생명윤리법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생명윤리법과 연구

생명과학 연구자에게 있어 생명윤리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관 허가 제도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 심의의 법적 의무화일 것입니다. 이전까지 자유롭게 행해지던 배아연구, 유전자연구, 유전자검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으로 등록, 신고하여야 연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연구에 관련된 사항이 법 조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아연구, 유전자연구에 대해서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모르는 연구자들은 법을 위반하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연구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신과의사와 연관이 큰 유전자 검사, 연구와 이와 관련한 기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명윤리법은 유전자검사를 하거나, 직접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려면 유전자검사기관 또는 유전자연구기관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연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하는 때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전자검사는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의 검사 등의 목적으로 혈액·모발·타액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염색체·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를 말하여, 연구에 포함된 유전자검사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행하던 의료행위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 유전자검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으로 신고하고 검체 채취 시 서면동의를 얻어서 기관위원회의 연구계획 심의를 거친 후 연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와 같은 규정을 모르고 있던 연구자들은 법적 절차에 맞게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생명윤리법에는 기관위원회에서 생명과학기술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아연구, 유전자연구 등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전반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윤리법에는 인간존엄, 유전정보 보호의 원칙 아래, 인체유래 검체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 체계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과정에서 얻은 검체를 보존하고 계신 연구자들께서는 규정을 잘 숙지하고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 맺음말

딱딱한 법 이야기를 읽으며 어렵고 귀찮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생명윤리는 연구자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사들도 법에 관심을 가지고 의료나 연구 현장의 상황이 법이나 규정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부 연구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모두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공지사항

### Asi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AsCNP) 창립을 위한 진행상황 보고

대한정신약물학회에서는 학회 국제화의 일환으로 AsCNP 창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습니다. 국제상임위원회(위원장 김영훈 이사장, 위원 강대엽/권준수/박원명/김찬형 이사, 간사 조현상 국제이사)에서는 2007년 3월 7일에 일본의 야마와키 교수와 중국의 Si Tian-Mei 교수를, 2007년 9월 7일 일본신경정신약물학회(JCNP) 회장 겸 일본임상신경정신약물학회(JSCNP) 부회장인 히구치 교수를 춘,추계대회에 초청하여 AsCNP 창설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기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합의된 다음 사항을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 2008년 3월 21-22일의 춘계학술대회에 일본 연자들을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였고, 가능하다면 이때 조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2. 2008년 10월 1-3일 개최되는 JSNP와 JSCNP 공동학술대회에서 Asian Session 구성하기로 하였고, 이때 AsCNP 조직위원회 미팅을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대회에는 한국측 준비위원인 김영훈 이사장을 포함한 4명의 국제위원이 참여기로 하였습니다.
3. AsCNP Meeting은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하였고 2009년 가을에 일본에서 제1회 AsCNP Meeting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치는 JCNP, JSCNP, 대한정신약물학회로 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이때 2008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 AsCNP의 1대 회장국은 일본이 맡기로 하였고, 2대 회장은 한국에서 맡게 되어 2011년 제2회 AsCNP Meeting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정신약물학회 국제이사 조 현 상

## 학회 공지사항

### [ 간행위원회 정례 워크숍 ]

대한정신약물학회 간행위원회는 정례 워크숍을 12월 21일 오후 2시부터 가톨릭과학연구원 1002호에서 개최합니다. 학회지 발전을 위하여 많은 회원들께서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송창진 평생회원

아이행복정신과를 개원함.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2동 171-4번지 세기빌딩 5층

전화 : 053-745-5275

e-mail : jidain@medigate.net

### 회원동정

### [ 근무지 및 주소 변경 ]

#### • 강지언 회원 (연강병원)

연강병원로 근무지가 변경됨.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408

전화 : 064-759-9641

e-mail : jekang@empal.com

### [ 회원 가입 ]

- 정회원 및 평생회원이 다음과 같이 새로 가입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 정회원

#### • 김병철 (해운대자명병원)

주소 : 612-022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산141

전화 : 051-747-8350 팩스 : 051-743-3576

E-mail : npkbc@hanmail.net



• 황준원 (서울대병원)

주소 : 110-744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전화 : 02-2072-3040 팩스 : 02-744-7241  
E-mail : huangjw1@snu.ac.kr

정회원 및 평생회원

• 최상철 (서울대병원)

주소 : 110-744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전화 : 02-2072-2928  
E-mail : sanchul2@hanmail.net

[기타]

• 고영훈 평생회원 (고려의대)

Psychoneuroendocrinology에 Association between serum testosterone levels and the severity of negative symptoms in male patients with chronic schizophrenia 논문을 발표하였다.

• 광경필 평생회원 (동국의대)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미국 듀크대학교병원 노인정신과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출국하였다.

• 김문두 평이사 (제주대의대)

2008년도 마르퀴즈 후즈후 과학기술인명 등재되었고 Brain Research에 Increased phosphorylation of cyclic AMP response element-binding protein in the spinal cord of Lewis rats with experimental autoimmune encephalomyelitis 논문을 발표하였다.

• 김진훈 평생회원 (국립서울병원)

박성혁 평생회원, 정은기 회원 (국립서울병원) 등과 함께 Journal of Nervous & Mental Disease에 Novelty-Seeking Among Schizophrenia Patients with Comorbid Alcohol Abuse 논문을 발표하였고 2007년 9월 6일부터 1년 예정으로 UCLA산하 Michael Green의 Laboratory에서 Neurocognition, Social Cognition과 Electrophysiology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수를 위해 출국하였다.  
(kimjinhun@korea.kr)

• 박원명 총무이사 (가톨릭의대)

대한의학회에서 주관하는 2007년 의학통계조사사업 공모에서 “국내 소아청소년 양극성 장애 선별 검사”가 선정되어 1년간 연구비를 수혜받게 되었으며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의 Reviewer 로 위촉되었다.

• 유범희 평이사 (성균관의대)

2007년 9월 2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WPA regional meeting에서 초청연자로 참석하여 <Mirtazapine versus venlafaxine for the treatment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with physical symptoms>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 이문수 평생회원 (고려의대)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에 Effects of Methylphenidate and Bupropion on DHEA-S and Cortisol Plasma Levels in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논문과 Characteristics of Internet Use in Relation to Game Genre in Korean Adolescents 논문을 발표하였다.

• 이승환 정보이사 (인제의대)

Physiological Measurement에 An EEG-based real time cortical rhythmic activity monitoring system을 공저자로 발표하였다.

• 정영철 평이사 (전북의대)

2007년 9월 1일자로 정신과 과장이 되었으며 World Journal of Biological Psychiatry에 Effect of donepezil added to atypical antipsychotics on cognition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 An open-label trial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7년도 학진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사업 (2년 과제)으로 “항정신병약물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의 기전 : 항정신병약물의 choline acetyltransferase에 대한 영향”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 조근호 평생회원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을지대학교, 031-740-7397) 조교수로 발령받았다



• **한창수 평생회원 (고려의대)**

Progress in Neuro-Psychopharmacology and Biological Psychiatry에 Usefulness of long-acting injectable risperidone during 12-month maintenance therapy of bipolar disorder 논문을 발표하였다.

[CINP 회원]

강대엽, 구민성, 권준수, 기백석, 김도훈, 김영훈, 김용구, 김재민, 김재진, 김찬형, 민성길, 박민철, 박원명, 박종익, 배치운, 송동호, 신영철, 신일선, 안석균, 오강섭, 우종인, 윤도준, 윤진상, 은홍배, 이민수, 이상열, 이승환, 이정희, 이홍식, 정문용, 정상근, 정영인, 정영철, 정인원, 정종현, 조현상, 천근아, 채정호, 함병주

**평생회비 납부 안내**

5년 전부터 학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평생회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계시나 바쁘신 관계로 아직까지도 못 내신 회원 분들은 이번 기회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회비는 50만 원입니다. 평생회비를 내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춘추계학술대회 대회비 면제
  2. 동계, 하계 심포지엄 등 인원이 제한된 행사에 최소의 부담 또는 본인부담 없이 우선 초대
  3. 학회지, 회보 등 학회자료 제공
  4. 유료 연수교육 50% 할인
  5. 연회비 면제
- ▷ 보내실 곳 : 우리은행 1002-532-022572  
예금주 민경준(재무이사)

**2006~2008년 회기**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총 191명)**

(2007년 10월 현재)

**상임이사 (18명)**

김영훈, 강대엽, 권준수, 박원명, 김찬형, 강웅구, 구민성, 조현상, 채정호, 이승환, 신영철, 정상근, 이상열, 민경준, 윤진상, 김창윤, 정인원, 김승현

**고문, 회장, 감사 (6명)**

박민철, 강병조, 이홍식, 윤도준, 한창환, 백기청

**비상임이사 (38명)**

김대진, 김도훈, 김문두, 김성곤, 김세주, 김용구, 김 원, 김재민, 김정란, 김희철, 박종익, 박한국, 반건호, 배치운, 서호석, 송동호, 오강섭, 우종민, 원승희, 유범희, 윤보현, 이정구, 이정훈, 이종서, 이창욱, 이현정, 장인진, 전덕인, 정문용, 정영철, 정종현, 조성남, 주연호, 천근아, 최종혁, 하규섭, 함병주, 홍경수

**정회원 (129명)**

강철중, 고영훈, 곽경필, 기백석, 김경환, 김광수, 김도관, 김 린, 김봉년, 김상헌, 김성안, 김시경, 김영돈, 김영철, 김용식, 김유석, 김 임, 김재진, 김정기, 김정진, 김종훈, 김지웅, 김진용, 김진훈, 김철권, 김철용, 김태석, 김태용, 김형섭, 남윤영, 노명선, 민성호, 박성근, 박성혁, 박영민, 박용범, 박이진, 박지도, 박지훈, 배승오, 배 안, 서완석, 서정석, 서정수, 서천석, 서호준, 석정호, 성형모, 손석한, 손인기, 송창진, 신동원, 신용욱, 신윤식, 신일선, 신철진, 심주철, 안석균, 안용민, 안은숙, 양수진, 양종철, 오동열, 오병훈, 왕성근, 우성일, 우영섭, 유승호, 유한익, 육기환, 윤 탁, 이경규, 이경욱, 이광현, 이대환, 이만기, 이문수, 이민수, 이상혁, 이선우, 이승재, 이승현, 이양현, 이영식, 이 은, 이종범, 이종섭, 이종훈, 이준석, 이필구, 이해원, 임세원, 임효덕, 장민정, 장안기, 장재승, 장혜련, 전양환, 전태연, 정범석, 정영인, 정영철, 정재석, 정주호, 정준규, 정철호, 정학재, 정한용, 조근호, 조수현, 주은정, 지익성, 진영호, 진용탁, 차경렬, 최삼욱, 최상철, 최성구, 최은영, 최지욱, 최하석, 하태현, 한상우, 한창수, 함 웅, 홍승철, 홍진표, 홍현주, 황 걸

(푸른색은 신입 평생회원임)

## 알림

본 회보에 게재될 내용이 있거나 새로운 소식과 회원 동정이 있으시면 홍보이사에게 아래의 주소로 우편, FAX, 또는 e-mail로 보내주시면 빠짐없이 회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덧붙여 회원 명단 중에 실수나 오기로 기록이 잘못된 회원이나 누락된 회원은 연락을 주시면 이후 회보에 수정하여 게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평동 108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신영철(홍보이사) 전 화 : 02-2001-2214 / 팩 스 : 02-2001-2211  
 E-mail : yshin523@hanmail.net

- 회원동정 난에는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보내주시기 바라고, 본인이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위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효과적  
치료를 위한 No. 1 선택 렉사프로**

- Superior efficacy <sup>1,2</sup>
- Fast onset <sup>3</sup>
- Excellent tolerability <sup>3,4</sup>
- Unique MoA: Serotonin

Ref.  
 1. Baldwin et al. Br J Psychiatry 2006;189:364-372  
 2. Luder et al. Depression and Anxiety 2004;19:241-248  
 3. Montgomery et al. Neuropsychobiology 2004;60:57-64

주요우울장애/공황장애/범불안장애/사회공포증

원인제약(주)  
 한국론드베(주)

Lundbeck **Lexapro**  
 escitalopram

**Seroquel**

**“A FIRST LINE, FIRST CHOICE  
 ANTIPSYCHOTIC”**

www.psychiatry-in-practices.com TEL. 02-2188-0800 AstraZeneca